

방기인(放送技術人)의 제주탐방 - 6

한라산(漢拏山)

글.
박지형 아리랑국제방송 제주영어FM방송국

하늘을 질러 망망대해 그곳 어딘가를 응시하면 하얀 면사포를 쓴 설문대할망[한라산을 창조한 대모신], 흰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하르방산신령이 나를 반긴다. 용두암에 발을 딛고서야 우뚝 솟은 한라산의 위용에 콩알만 해진 자신이 불안해진다. 혼저옵서예. 제주에!

하루 온종일 걸리지만 백록담전망대까지 정상등반이 가능한 관음사와 성판악탐방로. 반면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윗세오름 대피소(해발 1,700m)와 남벽분기점까지만 등반할 수 있는 어리목과 영실탐방로, 돈내코탐방로 5개 코스가 있고, 한라산의 정기를 자락까지 이어주는 어승생악과 석굴암탐방로가 있다. 편도 39.6km. 서울에서 부산에서 당일치기 등반도 해보자.

한라산 알아보기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상의 섬 제주도. 이 섬 한가운데 1,950m의 높이로 우뚝 솟은 한라산漢拏山이 있다. 능히 은하수를 잡아당길(雲漢可拏引也) 만큼 높은 산이란 뜻을 가진 이 산은 옛부터 신선들이 산다고 해서 영주산瀛州山(釜嶽·圓山·鎮山·仙山·頭無嶽 등)이라 불리기도 했고, 금강산金剛山, 지리산智異山과 더불어 우리나라 삼신산三神山の 하나로 여겨져 왔다.

한라산 주변에는 368개의 기생 화산인 오름들이 분포되어 있어 특이한 경관을 창출하고 있으며, 품고 있는 비경으로는 눈 덮힌 백록담, 왕관능의 위엄, 계곡 깊숙이 숨겨진 폭포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전설이 깃든 영실기암 등이 있다. 또한 다양한 식생분포를 이루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동·식물의 보고로서 1966년 10월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1970년 3월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정보 www.hallasan.go.kr)

한번 구경은상⁵⁰ 시요. 유네스코3관왕을 한 번에 탐방할 수 있는 곳 한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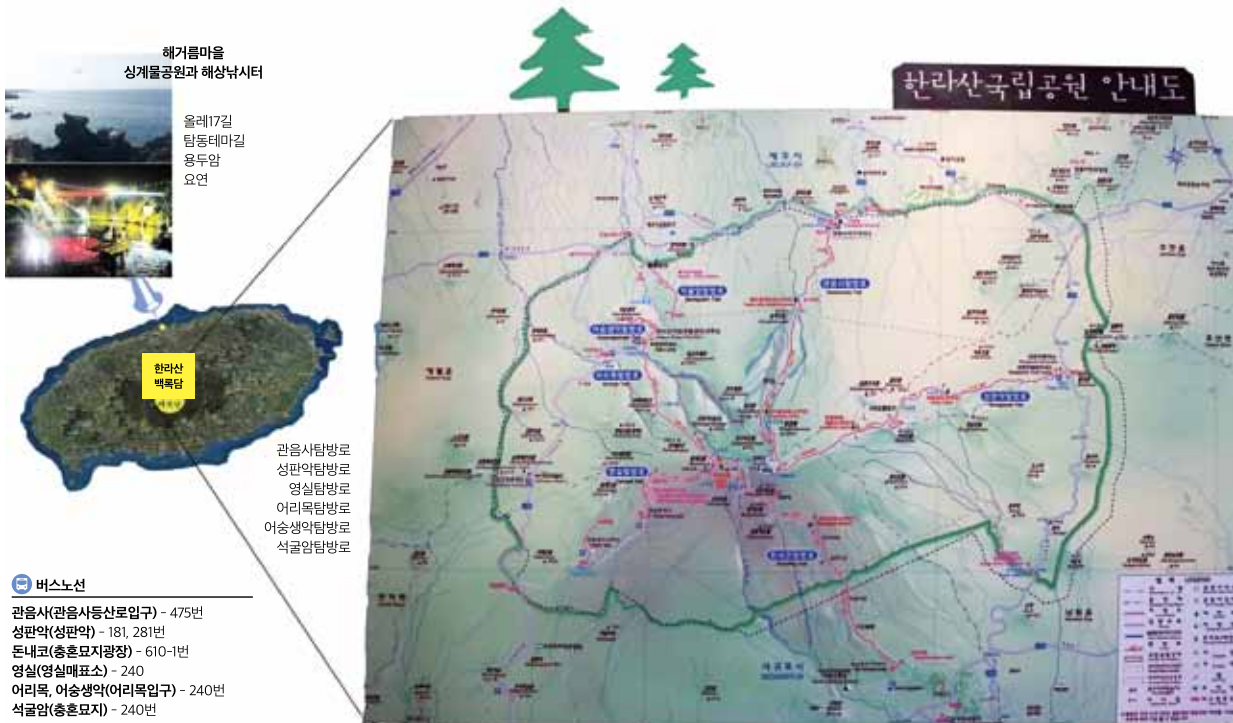
예나 지금이나 탐라·제주의 시작과 끝은 한라산이다.

해발 1,950m 정상은 사방 용암벽을 둘러치고 어디서 봐도 돌아앉은 모습은 신비스럽다.

설문대할망과 산신령에 의해 선택된 자만이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곳 한라산.

황금개띠 무술년 해맞이라 함께 간절한 소망으로 이번엔 만나뵙시다.





성판악탐방로

편도 9.6km로 가장 평탄하고 무난한 정상 탐방로다.

성판악탐방안내소(해발 750m) - 삼나무시대(악달인목) - 속밭 - 넓은공터(1km 지점) - 사라샘 - 사라대피소(화장실) - 진달래밭 대피소(7.3km 지점, 화장실, 쉼터) - 목재계단 - 동능정상(백록담전망대).

한라산에 올랐으라!

하얀 눈 외투와 살얼음으로 원색의 탐방객을 맞이하는 한라산 동능(東陵)과 백록담은 겨울 한라산의 진수를 보여준다. 백록담표지석과 한라산동능 정상 구상나무 표지목은 탐방객을 맞느라 오한까지 흘리며 분주하다. 분화구를 휘몰아치고 나오는 온기는 빙벽처럼 에워싸고 있는 잔설을 이기기 못하고 차디찬 분화구 한풍으로 탐방객들의 가슴을 아리도록 파고들면 한라산정기를 받아 뜨거워진 가슴도 열정도 식어 기념촬영에 정신없던 탐방객들의 한



성판악탐방로

유네스코3관왕

- 생물권보전지역(2002년) - 한라산국립공원
- 세계자연유산(2007년)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세계지질공원(2010년) - 한라산

N7W재단

- 세계7대자연경관(2011년) - 제주도



기는 한계에 달한다. 얼른 굽실거리지 않으면 겨울 한라산의 멋진 선물(感氣)을 받을 것이다. 줄을 서시오! 차례를 기다려 백록담표지석과 한라산동능 정상표지목과 함께 해본다. 마주보며 저 멀리 얼음장 가면을 쓰고 민낯을 보여주지 않는 백록담을 담아보고자. 난간에 기대어 백록담을 뒤에서라도 비춰보고자 이리저리, 이런저런 자세를 안절부절 할 즈음 백록담은 그들에게 보여준다. 탐방객이 내미는 시린 손바닥 위에 백록담의 얼음 거울로 당신의 진면모를 보여주며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나는 왜 한라산을 올랐는가? 제주도에 와서 한라산도 안 가본다고? 그럴 수도 있다. 수많은 탐방객의 이런 저런 표정과 모습으로 어른거리는 인간 군상들에게 한라산은 말한다. 오를 수 있는 자 내 품에 안기시오.



40여 년 전인가 청운의 시절에도 한라산에 올랐다. 기억엔 나무 데크나 계단은 없었다. 용암, 빌레길을 걸어서 정상 한라산에 왔다. 그리고 우루루 까만 송이와 함께 백록담으로 미끄러져가서 그 자작한 백록담에 손을 담갔다가 설문대할망의 심술로 물에 빠진 생쥐 꼴로 하산했던 기억이 아스라하다. 당연한 것처럼 꽤 오랜

시간을 한라산과 같이 했으나 여전히 마음은 허전하다. 내려오는 아쉬운 발길은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 뒤돌아보고 또 보고 아쉬움은 뒤로 한 채 내려가야 한다. 올라올 때 같이 하고자 했던 구상나무 군상,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의 흔적이라도 찾고자 했으나 부질없는 짓이다. 겨울에는 새하얀 눈길을 여름에는 시원한 화산석 송송 바람길을 봄에는 진달래 꽃길을 가을에는 단풍숲길을 내주며 견뎌온 한라산을 살아서 죽어서 지켜온 시간인데... 백 년도 채 못 행기는 인생이 흔적은 무슨, 부질없는 짓이다. 해발에 따른 식생들을 등산길을 헤아리며 한발 한발 내려오는 목재데크, 나무·용암계단, 송이·벵디길, 야자매트길은 시간과 체력과의 도전이라고 상처투성이의 등반로는 말하고 있다. 한라산은 지금 아픕니다. 언젠가는 등반도 쉽지 않겠지요. 바다 한가운데 외로운 한라산, 백록담 자리에 산방산이라도 채워지면 덜 외로울까? 백록과 식생과 할망·하르방이 함께 하는 그런 한라산이면 좋겠다.



뚜벅이 : 516 도로 성판악탐방안내소(181,281번)→탐방안내소/
탐방 9.6km

당일탐방

- 왕복코스 : 제주공항(8시 전 도착, 181번)↔성판악(181번)↔한라산동능
- 종주코스 : 제주공항(181번)→성판악→한라산동능→관음사→제주대학교(365-1번)→제주공항
- 승용차(왕복)** : 516 도로 성판악탐방안내소
(주차장, 쉼터, 화장실, 편의시설)



사라오름 산정호수(여름/겨울)





관음사탐방로-삼각봉, 용진각 대피소



백록담(1,800 고지에서), 삼각봉과 대피소

사라오름

성판악탐방로 사라오름 입구에 목재계단과 안전줄로 탐방로를 내고 있다. 활낙엽수림을 비집고 산정호수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끝에서 만나는 전망데크와 산정호수. 아! 이런 곳에 이런 호수가 있다니. 차가운 가슴이 뚫어오름을 느낀다. 온몸의 열기로 호수를 녹여보자. 그리고 한라산 백록담을 멀찍이 떨어져서 까마득히 바라만 봐야 했던 아쉬움. 신령수 한 모금이라도 맛보자. 산정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난 목재데크길을 따라 정상에 오른다. 이곳에서의 전망도 탐방객의 몫이 아닌 설문대할망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 백록담의 아쉬움을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달랜다.

관음사탐방로

편도 8.7km의 관음사코스는 성판악과 더불어 한라산 정상을 올릴 수 있는 등산기점이다. 관음사탐방안내소(해발 620m) - 탐라계곡목교 - 탐라계곡대피소 - 개미등 - 삼각봉대피소(화장실, 쉼터) - 샘터 - 용진각현수교 - 용진각대피소 - 동능정상(백록담전망대).

그날 수능시험일 숙이와 함께 탐방하고 싶었던 한라산에 올랐다. 탐방객의 시간에 익숙하다 보니 한라산의 시간을 지켜주지 못해 한라산얼차려를 받았다. 삼각봉대피소에 12시까지 도착해야 하는 한라산시간을 따라야 했기에 축지법을 써도 안 되고 날개도

달 수 없다. 야자매트길과 낙엽 쌓인 벵디, 빌레, 용암·목재계단길과 같이 하며 인증샷도, 구린굴, 숯가마터, 원점비, 목교, 탐라계곡, 적송지대 등도 답사하면서 한라산시간 90분으로 연장6km 비고880m 삼각봉대피소에 도착하는 것은 무리였다. 초행길이었지만 한라산의 체벌에 따라야만 했다. 삼각봉이, 분화구북벽이 앞으로 다가서며 기꺼이 맞아준다. 삼각봉과 왕관릉계곡의 용진각 샘터, 현수교, 물허벅 맨 할망, 대피소는 잠깐의 휴식을 줄 뿐 북벽이 하자는 대로 기념촬영하고 이끄는 대로 올라가야 한다. 북벽을 향해 천칠팔백고지를 오르는 길은 정말 가파른 용암계단길이다. 비록 탐방안전줄과 난간이 있긴 하지만 힘을 다 쏟아야만 한 걸음 한 계단씩 오를 수 있다. 정말 쉬면 못갈 것이나 쉬어야 한다. 목책에 주저앉았다. 잠깐이나마 하체 긴장을 풀어야 한다. 아득히 보이는 제주시 전경이 아른거린다. 백록담 분화구벽이 코앞인데 이리저리 목책을 따라가는 길은 새삼스레 정상으로부터 멀어져 가기만 한다. 내려오는 탐방객들 때문일까? 마지막 힘을 내야만 한다. 발아래로 펼쳐진 북쪽 오름군들을 눈에 새기고 긴 여정을 끝냈다. 한라산동능정상·백록담전망대에 도착했다. 성판악탐방로 탐방객들은 이미 관음사탐방로로 발길을 돌렸고 쉬고 있던 탐방객들도 백록담지기의 성화에 짜증스럽게 발길을 옮기는 중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늦게 온 탐방객은 탐방객대로 각자의 의식을 다 치른다. 명승 제90호 한라산백록담, 한라산

동능정상 표지목과 한라산천연보호구역 白鹿潭 표지석은 오늘도 촬영으로 만원이다. 배고픔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성판악탐방로로 내려와야 했다. 그렇게 바라보는 서귀포 전경도 흐리고 우울하다. 멀리 수평선도 보이지 않는다. 진달래발휴게소에서 한라산의 진수성찬(컵라면과 김밥)을 즐기며 서로의 빨개진 얼굴을 봤다. 아직까지 건재한 육신에 감사하며 탐방을 허락해주신 한라산신령님 고맙습니다.



뚜벅이 : 산록서로 관음사 탐방안내소(470번)→탐방안내소/

탐방로 8.7km

승용차 : 산록서로 관음사탐방안내소

(주차장, 쉼터, 화장실, 편의시설)

돈내코탐방로

편도 9.1km. 자연휴식년제로 오랫동안 등반이 제한되었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개방된 돈내코 코스는 한라산 분화구 남벽의 웅장한 자태와 서귀포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화창한 초여름

설레는 마음으로 돈내코탐방안내소를 갔다. 이름답게 죽은 자의 천국에서 뒤 돌아보면 서귀포의 아름다운 포구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힘들다. 탐방안내소지기와 인사도 건네기 전에 땀범벅이다. 예-, 영실로 갈 것입니다. 썩은물통 - 살채기[출입문]도 - 둔비[둔비, 두부]바위 - 평계대피소(해발 1,450m, 화장실, 쉼터) - 남벽분기점(해발 1,600m, 7km 지점).

완만한 야자매트길에서 타이어매트 그리고 목재계단과 데크가 밀림입구 송이길까지 이어주고 빌레에 붙어 힘겹게 살아가는 잡나무와 적송 사이로 울퉁불퉁, 얼기설기 끼어 맞춘 용암계단 등반로가 평계대피소까지 이어진다. 좌우는 활엽낙엽수림이요, 위아래는 손·발끝만 알아볼 정도의 빛만 주고 한 번도 온전히 짚을 땅바닥을 내주지 않는 등산로다. 간혹 해발과 위치를 확인해주는 안내석이 없다면 하늘 아래 어디에 있는가도 알 수 없다. 평계대피소에서 잠깐 허기를 채우고 넓은드르전망대에 왔다. 더 넓은 진달래꽃밭 배경은 분화구남벽이요, 웅장한 분화구남벽 배경은 진달래꽃밭이다. 어찌 사진 한 장에 다 담을 수 있으리요. 찬찬히 까마득히 아련한 서귀포의 모습을, 살짝 불을 돌린 동능을, 아로새기는 여유를 가진다. 따가운 햇살과 전혀 달라진 식생들, 송이들과 낮을 익혀가는 동안 어느덧 남벽 손아귀에서 놀고 있다.

돈내코탐방로 넓은드르전망대





영실탐방로-영실전
망대 오름군과 설경

영실탐방로와 만나기에 남벽분기점이다. 한 무리의 영실탐방객들과 어울려 반갑고 고마운 마음을 나누었다. 발길은 영실탐방로다. 방애오름과 웃세붉은오름계곡을 따라 탐방하는 길도 만만찮다. 목재계단과 데크가 계곡과 능선을 오르내리락 하면서 윗세오름대피소를 송이길로 이어준다. 어제나 그제나 윗세오름의 유명세도 한라산에 뒤지지 않는다. 웃세누운오름의 볼록한 둥그런 봉우리가 탐방객들을 가리지 않고 감싸 안는다. 겨울과 가을에 느껴 보지 못했던 산록의 영실탐방로는 젊다. 작은윗세오름, 노루샘터에 줄을 서서 약수를 받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선작지왓(立石山野)에 펼쳐진 조릿대에 괜한 미움을 나타내고 죽어 천년을 산다는 구상나무에게는 애처로운 마음이다. 산등성이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용암계단은 영실기암 오백장군상, 병풍바위에 한눈만 팔지 말 것을 경고한다. 오름군들 사이로 낮익은 오름을 찾아갈 즈음 영실계곡 적송들이 다 왔음을 알려준다. 늦여름에도 열기를 뿜어내는 돈내코탐방로는 여전한 모습이나 남벽이 더욱 신경질적으로 날카로워 보였고 중병에 걸려 신음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십여 년 넘게 출입을 통제했는데도 여전히 병은 깊어있

다. 허물어져 가는 분화구 용암벽·남벽·자연에 맡길 것인가? 인간의 성형으로 할 것인가?



뚜벅이 : 돈내코로 서귀포충혼묘지공원(610-1번) →

탐방안내소 1km/탐방 9.1km

승용차 : 돈내코로 서귀포충혼묘지 주차장

영실탐방로

편도 3.7km(남벽분기점 +2.4km). 가장 짧고 어려움이 없는 등반로이며 주변 경관이 빼어나 봄의 철쭉, 여름 계곡의 산록,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등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한라산의 절경을 나타낸다. 영실탐방안내소(해발 1,280m) - 적송지대 - 가파른 용암계단 - 제1심터(평상, 해발 1,400m) - 영실기암절벽 전망대(병풍바위, 오백나한) - 구상나무 숲 - 노루샘·선작지왓 - 윗세오름대피소(해발 1,700고지) - 방아오름샘 - 남벽분기점.

거의 한 시간 간격으로 1100 도로로 제주와 서귀포를 오가는 버스를 이용하여 영실과 어리목탐방안내소를 통해 순·역방향으로 탐방할 수 있다. 서울·부산사람, 중국·서양사람 모두 다 한라산을 향해 걷는다. 영실매표소(해발 1,000m)에서 휴게소(해발 1,280m)까지 가는 길도 만만찮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맑으나 추우나 더우나 가야 하는 길 2.5km는 덤 치고는 과하다. 등반길이 또렷한 봄·여름·가을 영실탐방길은 이야기가 있는 재미있는 등반길이다. 적송(赤松)과 계곡은 한라산의 봄기운을 전해주고, 영실기암(靈實奇巖)의 병풍바위, 녹음과 단풍은 푸른 하늘과 어울려 한 폭의 산수화 절경을 그려내고, 탁 트인 전망대 아래로 펼쳐진 오름군들(볼레, 어스령, 이스령, 삼형제오름 등)과 숨바꼭질하는 운무들은 한라산 능선을 따라 펼쳐진 절경에 방향을 잃고 떠돌다가 한여름의 열기로 거친 숨을 내뿜는 곳자왈에서 뿜어내는 아지랑이와 만나고서야 정신 차려 오백장군에게 술래를 넘겨준다. 전망대를 지나면 목책으로 단장된 구상나무숲을 만나고 선자지왓 노루샘에서 목을 축이고 윗세오름대피소에서 벌미(컵라면)를 즐길 수 있다. 제시간에 맞춰갔다면 남벽분기점을 탐방하고 돈내코탐방로를 선택하거나, 어리목으로 하산할 수 있다. 한라산 겨울 등반의 백미는 역시 영실탐방로 구상나무숲이다. 눈을 높이 멀리 돌 필요도 없다. 눈 천지, 눈 세상 화이트아웃이다. 오로지 눈과 같이 하는 것들 뿐이다. 알프스가 샤토로가 부럽지 않다. 목재데크도 용암길도 눈 속에 자취를 감췄고 탐방안내판, 정보판은 봄기운에

야 기지개를 켤 것이다.

영실탐방로! 봄여름가을엔 전망대안내판을 따라 보는 전망이 일품이요, 겨울은 몸을 감싸는 설경이 장관이다. 영실계곡 사계를 어떻게 글로 나타낼 수 있을까?



뚜벅이 : 1100로 영실매표소(240번) → 탐방소 2.5km /

탐방 3.7km(남벽분기점 + 2.4km)

승용차 : 영실탐방안내소(쉼터/매점, 주차장, 화장실)

어리목탐방로

편도 4.7km, 윗세오름 2시간 소요. 가장 대중적인 코스로 해발 1,700고지의 윗세오름까지 가는 탐방로로 꽃철이면 만세동산의 철쭉이 장관을 이루고 폭설은 사제비동산과 만세동산에 최고의 눈썰매장을 선사한다. 남벽분기점(편도 2.4km) 등반을 하고 안하고는 오롯이 탐방객의 몫은 아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어리목탐방안내소(해발 970m) - 어리목목고 - 숲터널 - 사제비약수터 - 사제비동산(2.3km 지점) - 만세동산(해발 1,500고지, 3.6km) - 오름샘 - 윗세오름
낮익힘을 위해 어울림등산을 하든 숙이와 같이 하든 어리목탐방

어리목탐방로-만세
동산과 윗세오름





석굴암탐방로 초입과 석굴암자 탐방로



로는 친밀함을 준다. 완만한 곡선으로 동산을 오르듯, 뒷산 약수터를 가듯, 앞산 공원을 산책하듯 그렇게 오르기를 권하는데... 목교를 지나 숲터널을 지나면서는 한라산을 등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제비약수터까지 목책과 용암계단이 먼 한걸음, 가까운 두 걸음으로 사람 사는 얘기도 하며 쉬엄쉬엄 등산하라고 하나 마음이 앞서가니 피로하고 몸이 무거워진다. 사제비동산, 만세동산 전망대에 올라 몸과 마음을 쉬자. 낮지만 결코 낮지 않은 앞은뱅이 민대加里동산, 강구목오름, 웅장한 백록담화구벽, 한라산 하늘선을 이어가는 윗세오름오름과 누운오름이 땅길 터가기를 원하고, 뒤쪽으로는 사제비, 바리메, 붉은, 노꼬메, 쳇망오름이 한라산 자락을 수렴하고 수산봉, 모슬봉, 송악산은 가파도, 마라도까지 아련히 바닷길을 이어주고 있다. 어리목탐방로의 진면목을 즐길 수 있다면 설문대할망께 감사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심술을 부릴 줄 모르기 때문에.

윗세오름대피소부터 만세동산, 사제비동산길이 목책데크와 계단인지는 그때는 몰랐다. 온통 눈 천지에 그야말로 눈썰매장인줄로만 알았다. 아이젠도 없어 영실을 올라 어리목으로 내려가면서 눈썰매를 탔던 그때가 눈에 선하다. 숲 터널 급경사에서는 알파인처럼 활강하면서 내려왔었다.

어리목과 영실탐방로는 님은꼴이다. 탐방로를 이어주는 영실입구 : 어리목입구, 초입의 목교, 숲터널 : 적송, 약수터·오름샘 : 노루샘, 사제비동산 : 선작지왓, 만세동산(분화구북벽과 오름능선) : 죽은윗세오름전망대(분화구서벽과 오름능선). 그리고 윗세오름에서 하나가 된다.



뚜벅이 : 1100로 어리목입구(240번) → 탐방안내소 1km /

탐방 4.7km(남벽분기점 + 2.4km)

승용차 : 어리목탐방안내소(쉼터/매점, 주차장, 화장실)

석굴암탐방로

한라산의 미완성 아흔아홉 골의 이야기(大國動物大王入島)를 지닌 골짜기와 산세가 뛰어난 산등성이와 계곡을 잇는 석굴암탐방로 1.5km는 능선과 계곡을 따라 이는 바람소리는 도심의 찌든 때를 씻어 낼 수 있고 산사의 불경소리와 풍경소리에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좋은 등산로다.

충혼묘지주차장(천왕사 입구)에서 시작하는 탐방로는 서너 걸음 넓은 목재계단으로 숲속을 산책하다 골머리오름능선을 오르면서 한걸음 계단으로 좁아지면서 산등성이를 따라 목재데크전망대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다. 아름드리 소나무 사이를 비집고 겨우 자리를 잡은 낙엽수는 잎사귀로 소나무 뿌리를 덮어주면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으나, 정녕 자신들은 앙상한 가지로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의 나를 똑 닮았다. 냉기를 잔뜩 품은 계곡은 희뿌연 입김으로, 울창한 소나무·활낙엽수림 가림이 어떤 전망도 보여 주지 않는 것이 아쉽다. 석굴암자에 전달할 보시보자기를 댔든 안 댔든 계곡을 품어 안은 석굴암자를 지나치지 말자. 골머리오름계곡을 품은 석굴암자는 깎아지른 바위(磨崖名, 南無...)를 뒤편 짐지고 앉았으나 웅장함과 너무 거리가 멀고 초라하기는 그 지없으나 그 이름값과 유명세는 있는가 보다. 찾는 이가 있으니. 암자는 오늘도 목탁소리와 함께 영험한 기를 모아 소원을 들어주고 있다. 다시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서 석굴암을 둘러싸고 있는 계곡에는 영험함이 피어오르고 있다.



뚜벅이 : 1100로 충혼묘지(240번) → 탐방로 1km /

탐방(목재계단) 1.5km

승용차 : 충혼묘지주차장(주차장, 화장실)

어승생악탐방로

영실에서 윗세오름을 돌아 어리목에서 기진맥진한 몸을 달래며

폭설을 게걸음으로 헤치며 어승생악(해발 1,169m)에 올랐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때는 아마도 뭔가 단단히 씩어졌었다. 설문대할망도 말리지 않았다. 일제진지동굴의 원혼들이 이끌었는지도 모른다. 목재계단과 데크로 정상까지 등·하산하는 편도 1.3km 탐방길.

오늘은 청명한 가을. 오롯이 어승생악만 탐방한다. 가벼운 등산객들과 탐방길을 같이하며 앞서거나 뒤서거나 정상에 올랐다. 전망대, 일제군사시설과 관측소, 기지국이 정상에서 민망해한다. 남쪽 방향으로 보여주는 한라산과 어리목계곡이 선명하게 한눈에 들어온다. 북쪽 제주해안의 바다는 수산봉, 도두봉, 사라봉을 상납하며 전경을 권한다. 뒤쪽 원형분화구 산정호도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신비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보일락 말락. 사방으로 펼쳐지는 전망에 놓았던 정신줄을 되잡고 등산길에 같이 했던 낮익은 기목^{奇木}, 동식물들과 같이 가을품에 안겼다. 가장 한가한 미시^{未時} 한라산국립공원안내소 학습·자료관을 관람하고 야외체험학습장을 산책하면서 전망도 즐기며 한라산의 사계정취에 흠뻑 취한다.



두벽이 : 1100로 어리목입구(240번) → 탐방안내소 1km /

탐방 1.3km(목재계단)

승용차 : 어리목탐방안내소(국립공원 학습·자료관,

야외체험학습장, 쉼터/매점, 주차장, 화장실)

어승생악 정상 전망과 분화구 산정호



한라산 등반 쉽지 않았죠? 연계 관광지는 여유 있을 때 찾아가죠.



제주 문화

제주음식 : 제주토속음식 몸국

제주 지역에서 돼지고기(등뼈, 내장, 순대)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묵]을 넣어 만든 국. 느끼한 맛이 별미다.



제주말 익히기 :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명소 둘러기

용두암 : 슬픈 전설과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용두암(龍頭巖), 각양각색의 조명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용연(龍淵夜帆)과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절벽(翠屏潭),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출렁이는 구름다리(雲橋)에서의 짜릿함과 맹세까지 제주시의 야간명소 용두암과 용연이다. 해안산책길, 올레 17길, 동·서한두기 탐동 테마거리를 거닐면서 너무 가까이 있어 소홀히 했던 명소를 찾아가자.



다음 호에는 한라산 자락을 따라 다양한 자연생태와 산림문화, 역사현장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개설한 에코힐링한상숲길 한라산둘레길을 탐방하면서 한라산과 한결 친해진다. 무술년^{戊戌年} 새해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빌며 복 많이 받으세요. ☺